

<지난주 말씀>

▶하나님이 25년을 허락하셨습니다. 25년을 못 온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날에 부름을 받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25년을 산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직 우리가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걸어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2025년을 어떻게 걸어가야 합니까? 구원의 창시자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워야 할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빛의 망대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망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를 가지고 시작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25년은 빛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매달 지나면서 우리가 망대를 가지고 여정을 가는 가운데 이정표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해 가져가야 할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24년은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따라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새로운 응답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걸 바꾸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성령 인도를 세밀하게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는 말씀을 따라 나를 편집 설게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이걸 바꾸고 나면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내 소속과 내 배경이 보좌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찾아야 할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찾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만 하면 거기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망대, 빛의 망대를 가지고 그 망대를 세우면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서 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정을 찾고 나면 우리는 이정표를 세워야 합니다. 1부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의 일곱 렘넌트들은 정확하게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가지고 한 시대의 응답을 받았습니 다. 이 증인들 덕에 나라가 살고 시대가 살고 역사가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서 우리의 여정을 성령의 열매로 남겨야 합니다. 이게 25년을 걸어가는 제 2의 시작 300%입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빛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는 본체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그 본체라는 것입니다. 따로 분리하고 따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분은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만유의 상속자로 성육신하고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그리스도만큼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재림의 때에 모든 천사들이 경배해야 할 경배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주의 나라의 법은 공평한 규칙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영적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부음을 받고 태초에 땅의 기초를 두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오직 영존하시고 영존할 분입니다. 그에게는 연대가 없습니다. 원수를 결박하고 보좌 우편에 계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로 한 해를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시작도 구원의 창시자 그리스도로 우리는 한해를 시작합니다.

<본론>

1.큰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

▶큰 구원은 영이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댓가로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신 구원입니다.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몸에 열달동안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나서 공생애 기간을 통해서 우리 인간과 똑같이 먹고 자고 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리라(히2:1)

우리가 받은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는 것이 마땅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죱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히2:2-3상)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안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서 큰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성취를 따라 이루어진 이 큰 구원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보응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응은 죄의 댓가이고 지옥입니다. 이 큰 구원을 받지 않으면 이 재앙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히2:3하)

우리는 이 비밀을 듣고 확증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듣고 그 들은 것을 말씀으로 확증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히2:4)

천사들을 통해 전달된 이 복음이 사람들을 통해서 확증되고 나서 그 확증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언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복음을 하나님께서도 확증하셨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기

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히2:5)

인간이 바라보아야 할 구원자는 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구원받은 인간은 천사를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어마어마한 구원의 비밀이 천사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 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히2:6)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영광과 배경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히2:7-8상)

그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육신을 입었을 때는 천사보다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로 그리스도에게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천사 앞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고 경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구원의 창시자 그리스도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히2:8하-9)

육신의 모습으로 예수를 보니 천사보다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흘려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얼마나 큰 구원인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세 전부터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육신의 몸으로 피흘리고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큰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히2:10)

독생자를 보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게 하고 그 죽음을 통해 큰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합당한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합당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합당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모자란 사람이 있거나 잘난 사람이 있거나 형제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히2:11)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한 근원에서 난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피가 같은 형제입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한 근원이 된 형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끼리 싸우면 안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면 서로 미워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직분도 중요하지만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게 맞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히2:12)

상대방을 형제라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서도 안되고 주의 이름으로 형제된 자들끼리 다른 짓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교회 안에 싸움이 나고 교회가 깨지고 하는 것은 사실 말씀에 안 맞는 것입니다. 내 의가 나오고 내 주장이 강해서 그렇지, 말씀에는 안 맞는 것입니다.

3.삼중직을 이루신 그리스도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히2:13상)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만 의지해야 합니다.

▶또 다시 불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히2:13하)

우리는 형제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형제는 부를 때 쓰는 용어이고, 동시에 우리의 신분이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히2:14)

우리를 구원하신 큰 구원의 주체 되신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있을 때 그도 똑같이 육신을 가진 존재로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직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고 요한복음 19장은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일3:8). 구원은 마귀가 멸한 사건이고 마귀의 종된 인간이 해방된 사건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히2:15)

우리는 해방된 자들입니다. 매이지 마시고 종노릇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해방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일과 사건과 과거에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히2:16)

마귀를 멸하시고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신 것은 천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러 하심이라(히2:17)

이 사람이 죄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죄가 해결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원은 마귀가 멸해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하던 사건에서 해방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예수 이름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삼중직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구원의 창시자인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히2:18)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당했습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능히 시험을 받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분이 능히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항상 그리스도, 매일 그리스도, 우리와 24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

▶큰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언된 말씀을 따라 성취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주신 말씀이고, 들은 자들을 통해서 확증된 것이고, 하나님도 그 말씀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받았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근원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놀랍게도 그 분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분이

다. 이 분이 구원의 창시자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2025년에 세워야 할 첫 번째 망대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빛교회
ζωη φως ἐκκλησία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0-147호

담임목사 : 곽동호

전 화 : 010-5205-4079

E - mail : dhkwak0224@hanmail.net

인생복음상담 : 070-4406-4079